

## 왓투빠마경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 Vatthūpamasuttaṃ- The Simile of the Cloth-,  
맛지마니까야 M9, 전재성님역)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싸왓티 시의 제따와난에 있는 아나타뻬디까 승원에 계셨다.

2. 그 때에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불렀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다.

3.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승들이여, 여기 더럽혀지고 때가 묻은 옷감이 있는데 염색공이 그것을 청색, 노랑색, 빨강색 또는 분홍색이나 어떤 다른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면, 잘 물들지 않고 선명하게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마음이 더럽혀지면 나쁜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

4. 수행승들이여, 여기 깨끗하고 청정한 옷감이 있는데 염색공이 그것을 청색, 노랑색, 빨강색 또는 분홍색이나 어떤 다른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면, 잘 물들고 선명하게 물들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으면 좋은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

5. 수행승들이여, 마음의 더러움이란 어떠한 것인가? 욕심내는 것과 부정한 탐욕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악의가 마음의 더러움이고, 화내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원한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저주가 마음의 더러움이고, 격분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질투가 마음의 더러움이고, 인색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기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고집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선입견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자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오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교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방일이 마음의 더러움이다.

6.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욕심내는 것과 부정한 탐욕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욕심내는 것과 부정한 탐욕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악의가 더러움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악의를 품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화냄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화내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원한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원한에 찬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저주가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저주라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격분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격분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질투가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질투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인색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인색이라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거짓을 행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기만하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기만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고집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고집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선입견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선입견을 갖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자만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자만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오만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오만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교만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교만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방일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방일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린다.

7. 그는 부처님에 관해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공양 받을 만한 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 명지와 덕행을 갖추신 분,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이해하는 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 사람들을 길들이시는 분,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 부처님, 세상에 존귀한 분입니다.’라고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정한 믿음을 성취한다.

7. So budd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itipi so bhagavā araham̐ sammāsambuddho vijjācara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anuttaro purisadammasārathī satthā devamanussānam̐ buddho bhagavāti.

8. 그는 가르침에 관해 이와 같이 ‘세존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은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승화시키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이 하나하나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입니다.’라고 경험에 근거를 둔 청정한 믿음을 성취한다.

Dhamm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sandittiko akāliko ehipassiko opanayiko paccattam̐ veditabbo viññūhīti.

9. 그는 제자들의 참모임에 관해 이와 같이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모임은 훌륭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모임은 정직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모임은 현명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모임은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이와 같이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모임은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참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 공양 받을 만하시고, 대접받을 만하시고 선물받을 만하시고 존경받을 만하시고 세상에 가장 높은 복밭입니다.’라고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정한 믿음을 성취한다.

Saṅg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s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uj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ñāya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sāmīcipaṭipanno bhagavato sāvakasaṅgho, yadidaṃ cattāri purisayugāni aṭṭha purisapuggalā,

esa bhagavato sāvakaśaṅgho āhuneyyo pāhuṇeyyo dakkhiṇeyyo añjalikaraṇīyo anuttaraṃ puññakkhettaṃ lokassāti.

**10.** 그가 어느 정도 마음의 더러움을 포기하고 쫓아내고 놓아주고 버려버리고 보내버렸을 때에, 그는 비로소 ‘나는 부처님에 관해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성취했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한 영감을 얻고, 현상에 대한 영감을 얻고, 가르침과 환희를 얻는데, 환희하는 자에게는 희열이 생겨나고, 희열이 있는 자에게는 몸의 상쾌함이 있고, 몸이 상쾌한 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운 자는 마음이 집중된다.

**11.** 그는 ‘나는 가르침에 관해 경험에 근거를 둔 청정한 믿음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깨우치고, 가르침을 깨우치고, 가르침과 관련된 환희를 얻는데, 환희하는 자에게는 희열이 생겨나고, 희열이 있는 자에게는 몸의 상쾌함이 있고, 몸이 상쾌한 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운 자는 마음이 집중된다.

**12.** 그는 ‘나는 참모임에 관해 경험에 근거를 둔 청정한 믿음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깨우치고, 가르침을 깨우치고, 가르침과 관련된 환희를 얻는데, 환희하는 자에게는 희열이 생겨나고, 희열이 있는 자에게는 몸의 상쾌함이 있고, 몸이 상쾌한 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운 자는 마음이 집중된다.

**13.** 그가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의 더러움을 포기하고 쫓아내고 놓아주고 버려버리고 보내버렸다.’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깨우치고, 가르침을 깨우치고, 가르침과 관련된 환희를 얻는데, 환희하는 자에게는 희열이 생겨나고, 희열이 있는 자에게는 몸의 상쾌함이 있고, 몸이 상쾌한 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운 자에게는 마음이 집중된다.

**14.**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흰쌀죽과 여러 가지 수프와 조미료를 먹는다 해도, 이와 같은 계율,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추면 그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마치 더럽혀지고 때묻은 옷감은 맑은 물에 넣어 깨끗하고 청정해지고, 금광석은 제련화로에 넣어 깨끗하고 청정해지듯이, 수행승들이여, 이처럼 수행승이 흰쌀죽과 여러 가지 수프와 조미료를 먹는다 해도, 이와 같은 계율,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추면 그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15.** 그는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

**16.** 그는 연민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연민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연민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연민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연민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

**17.** 그는 기쁨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기쁨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기쁨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기쁨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기쁨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

**18.** 그는 평정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평정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평정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평정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평정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

**19.** 그는 ‘이것이 있고 저열한 것이 있고 탁월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을 넘어서서 그것에서 벗어남이 있다.’라고 안다.

**20.**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한다. 해탈하면 그에게 ‘나는 해탈했다.’는 앎이 생겨난다. 그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수행승을 내면의 목욕으로 청정해진 수행승이라고 부른다.”

**21.** 그런데 그 때에 바라문 쏘다리카 바라드와자가 세존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바라문 쏘다리카 바라드와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그래도 세존이신 고탓마께서는 바후까 강으로 목욕하러 가십니다.”

“바라문이여, 바후까 강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바후까 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존이신 고탓마여, 사람들은 바후까 강이 많은 사람을 해탈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신 고탓마여, 사람들은 바후까 강이 많은 사람에게 공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후까 강에서 많은 사람이 악업을 씻습니다.”

**22.** 그러자 세존께서는 바라문 쏘다리카 바라드와자에게 계승으로 이야기했다.

바후까 강과 아디학까 강, 가야 강과 쏘다리카 강  
싸라싸띠 강과 빠야가 강, 또한 바후마띠 강에

어리석은 자 항상 뛰어들어 목욕해도  
언제나 검은 행위를 씻을 수 없네.  
쏟다리카 강이 무슨 소용인가?  
빠야가 강이, 바후까 강이 무슨 소용인가?  
강들은 악업을 저지르는 자를 씻지 못하네  
그 잔인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축제일이 있고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포살이 있네  
마음이 청정하고 행위가 맑은 자는  
항상 자신의 계행을 원만히 하네  
바라문이며, 여기에 참으로 목욕하라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그대에게서 안녕을 얻으리.  
거짓을 말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색하지 않으면  
가야 강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가야 강은 그대에게 우물에 지나지 않네

**23.** 이처럼 말씀하시자 바라문 쏘다리카바라드와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존자 고타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듯이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 존자 고타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타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이신 고타마 앞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겠습니다.”

**24.** 바라드와자 가문의 바라문은 세존의 앞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존자 바라드와자는 구족계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바라드와자는 거룩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 Suttantapiṭake

## Majjhimanikāyo

### Mūlapaṇṇāsako

#### 1.Mūlapariyāy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1.1.7

#### (7) Vatthūpamasuttaṃ

1. Evaṃ me sut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sāvatthiyaṃ viharati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ārāme.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bhikkhavoti. Bhadanteti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m. Bhagavā etadavoca:

2. Seyyathāpi bhikkhave vatthaṃ saṅkiliṭṭhaṃ malaggahitaṃ, tamenam rajako yasmiṃ yasmiṃ raṅgajāte upasaṃhareyya yadi nīlakāya yadi pītakāya yadi lohitakāya yadi mañjeṭṭhakāya,<sup>2</sup> durattavaṇṇamevassa. Aparisuddhavaṇṇamevassa. Taṃ kissa hetu? Aparisuddhattā bhikkhave vatthassa. Evameva kho bhikkhave citte saṅkiliṭṭhe duggati pāṭikaṅkhā.

-----

1. Abhiññāya, [PTS] 2. Mañjaṭṭhakāya, machasaṃ

[BJT Page 084] [\x 84/]

3. Seyyathāpi bhikkhave vatthaṃ parisuddhaṃ pariyodātaṃ, tamenam rajako yasmiṃ yasmiṃ raṅgajāte upasaṃhareyya yadi nīlakāya yadi pītakāya yadi lohitakāya yadi mañjeṭṭhakāya, surattavaṇṇamevassa. Parisuddhavaṇṇamevassa. Taṃ kissa hetu? Parisuddhattā bhikkhave vatthassa. Evameva kho bhikkhave citte asaṅkiliṭṭhe sugati pāṭikaṅkhā.

4. Katame ca bhikkhave cittassa upakkilesā: abhijjhāvisamalobho cittassa upakkilesa. Byāpādo cittassa upakkilesa. Kodho cittassa upakkilesa. Upanāho cittassa upakkilesa. Makkho cittassa upakkilesa. Paḷāso cittassa upakkilesa. Issā cittassa upakkilesa. Macchariyaṃ cittassa upakkilesa. Māyā cittassa upakkilesa. Sāṭṭheyyaṃ cittassa upakkilesa. Thambho cittassa upakkilesa. Sārambho cittassa upakkilesa. Māno cittassa upakkilesa. Atimāno cittassa upakkilesa. Mado [PTS Page 037] [\q 37/] cittassa upakkilesa. Pamādo cittassa upakkilesa.

5. Sa kho so bhikkhave bhikkhu abhijjhāvisamalob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editvā abhijjhāvisamalobh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Byāpādo cittassa upakkilesoti iti veditvā byāpād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Kod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editvā kodh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Upanā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upanāh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Makk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akkh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Paḷās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paḷās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Issā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iss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Macchariyaṃ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acchariy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Māyā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āy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Sāṭṭheyyaṃ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sāṭṭheyy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Thamb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thambh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Sāramb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sārambh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Mān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ān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Atimān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atimān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Mad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ad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Pamād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pamādaṃ cittassa upakkilesaṃ pajahati.

[BJT Page 086] [\x 86/]

6. Yato ca kho bhikkhave bhikkhuno abhijjhāvisamalob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abhijjhāvisamalobh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byāpād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byāpād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kod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kodh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upanā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upanāh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makk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akkh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paḷās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paḷās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issā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issā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macchariyaṃ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acchariyaṃ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māyā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āyā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sāṭṭheyyaṃ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sāṭṭheyyaṃ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thamb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thambh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sārambh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sārambh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mān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ān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atimān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atimān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mad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mad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pamādo cittassa upakkilesoti iti viditvā pamādo cittassa upakkilesoti pahīno hoti.

7. So budd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itipi so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vijjācaraṇasampanno sugato lokavidū anuttaro purisadammasārathī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ti. Dhamm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svākkhāto bhagavatā dhammo sandiṭṭhiko akāliko ehipassiko opanayiko paccattaṃ veditabbo viññūhīti. Saṅg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s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śaṅgho, ujupaṭipanno bhagavato sāvakaśaṅgho, ñāyapaṭipanno bhagavato sāvakaśaṅgho, sāmīcipaṭipanno bhagavato sāvakaśaṅgho, yadidaṃ cattāri purisayugāni aṭṭha purisapuggalā, esa bhagavato sāvakaśaṅgho āhuneyyo pāhuneyyo dakkhiṇeyyo añjalikaraṇīyo anuttaraṃ puññakkhettaṃ lokassāti.

[BJT Page 088] [\x 88/]

8. Yatopi l kho panassa cattaṃ hoti vantaṃ muttaṃ pahīnaṃ paṭinissaṭṭhaṃ. So budd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amahīti labhati atthavedaṃ. Labhati dhammavedaṃ. Labhati dhammūpasaṃhitaṃ pāmujaṃ. Pamuditassa pīti jāyati. Pītimanassa kāyo passambhati.

Passaddhakāyo sukhaṃ vedeti. Sukhino cittaṃ samādhiyati. Dhamm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mhīti labhati atthavedaṃ. Labhati dhammavedaṃ. Labhati dhammūpasamhitaṃ pāmujaṃ. Pamuditassa pīti jāyati. Pītimanassa kāyo passambhati. Passaddhakāyo sukhaṃ vedeti. Sukhino cittaṃ [PTS Page 038] [\q 38/] samādhiyati. Saṅg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mhīti labhati atthavedaṃ. Labhati dhammavedaṃ. Labhati dhammūpasamhitaṃ pāmujaṃ. Pamuditassa pīti jāyati. Pītimanassa kāyo passambhati. Passaddhakāyo sukhaṃ vedeti. Sukhino cittaṃ samādhiyati. 'Yatopi l kho pana me cattaṃ vantaṃ pahīnaṃ paṇinissaṭṭha'nti labhati atthavedaṃ. Labhati dhammavedaṃ. Labhati dhammūpasamhitaṃ pāmujaṃ. Pamuditassa pīti, jāyati. Pītimanassa kāyo passambhati. Passaddhakāyo sukhaṃ vedeti. Sukhino cittaṃ samādhiyati.

9. Sa kho so bhikkhave bhikkhu evaṃ sīlo evaṃ dhammo evaṃ pañño sālīnaṅcepi piṇḍapātaṃ bhuñjati vicitakāḷakaṃ anekasūpaṃ anekabyañjanaṃ, nevassa naṃ hoti antarāyāya. Seyyathāpi bhikkhave vatthaṃ saṅkiliṭṭhaṃ malaggahitaṃ acchaṃ udakaṃ āgamma parisuddhaṃ hoti pariyodātaṃ, ukkāmuksaṃ vā panāgamma jātarūpaṃ parisuddhaṃ hoti pariyodātaṃ, evameva kho bhikkhave bhikkhu evaṃ sīlo evaṃ dhammo evaṃ pañño sālīnaṅcepi piṇḍapātaṃ bhuñjati vicitakāḷakaṃ anekasūpaṃ anekabyañjanaṃ, nevassa naṃ hoti antarāyāya.

10. So mettāsahagatena cetasā ekaṃ disaṃ pharivā viharati. Tathā dutiyaṃ. Tathā tatiyaṃ. Tathā catutthiṃ. Iti uddhamadho tiriyaṃ sabbadhi sabbattatāya sabbāvantaṃ lokaṃ mettāsahagatena cetasā vipulena mahaggatena appamāṇena averena abyāpajjena pharivā viharati. Karuṇāsahagatena cetasā ekaṃ disaṃ pharivā viharati. Tathā dutiyaṃ. Tathā tatiyaṃ. Tathā catutthiṃ. Iti uddhamadho tiriyaṃ sabbadhi sabbattatāya sabbāvantaṃ lokaṃ karuṇāsahagatena cetasā vipulena mahaggatena appamāṇena averena abyāpajjena pharivā viharati. Muditāsahagatena cetasā ekaṃ disaṃ pharivā viharati. Tathā dutiyaṃ. Tathā tatiyaṃ. Tathā catutthiṃ. Iti uddhamadho tiriyaṃ sabbadhi sabbattatāya sabbāvantaṃ lokaṃ muditāsahagatena cetasā vipulena mahaggatena appamāṇena averena abyāpajjena pharivā viharati. Upekkhāsahagatena cetasā ekaṃ disaṃ pharivā viharati. Tathā dutiyaṃ. Tathā tatiyaṃ. Tathā catutthiṃ. Iti uddhamadho tiriyaṃ sabbadhi sabbattatāya sabbāvantaṃ lokaṃ upekkhāsahagatena cetasā vipulena mahaggatena appamāṇena averena abyāpajjena pharivā viharati.

-----

1. Yathodhi - sīmu " atthakathāyaṃ 'yathodhi'iti pāṭhantaravasena niddiṭṭhaṃ.

[BJT Page 090] [\x 90/]

11. 'So atthi idaṃ, atthi hīnaṃ, atthi paṇītaṃ, atthi imassa saññāgatassa uttariṃ nissaraṇa'nti pajānāti. Tassa evaṃ jānato evaṃ passato kāmāsavāpi cittaṃ vimuccati. Bhavāsavāpi cittaṃ vimuccati. Avijjāsavāpi cittaṃ vimuccati. Vimuttasmimṃ vimuttamiti ñāṇaṃ hoti.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itthattāyāti [PTS Page 039] [\q 39/] pajānāti. Ayaṃ vuccati bhikkhave bhikkhu sināto antarena sinānenāti.



12. Tena kho pana samayena sundarikabhāradvājo brāhmaṇo bhagavato avidūre nisinno hoti. Atha kho sundarikabhāradvājo brāhmaṇo bhagavantaṃ etadavoca: gacchati pana bhavaṃ gotamo bāhukaṃ nadiṃ sināyitunti?

13. Kiṃ brāhmaṇa bāhukāya nadiyā? Kiṃ bāhukā nadī karissatīti? Lobyasammata hi bho gotama bāhukā nadī bahujanassa. Puññasammata hi bho gotama bāhukā nadī bahujanassa. Bāhukāya ca pana nadiyā bahujano pāpakaṃ kataṃ kammaṃ pavāhetīti.

Atha kho bhagavā sundarīkabhāradvājaṃ brāhmaṇaṃ gāthāhi ajjhabhāsi:

Bāhukaṃ adhikakkañca gayaṃ sundarikāmapī,  
Sarassatiṃ payāgañca atho bāhumatiṃ nadiṃ.  
Niccampi bālo pakkhanno kaṇhakammo na sujjhati,  
Kiṃ sundarikā karissati kiṃ payāgo kiṃ bāhukā nadī,  
Veriṃ katakibbisam naraṃ na hi naṃ sodhaye pāpakammaṃ.  
Suddhassa ve sadā phaggu suddhassuposatho sadā,  
Suddhassa sucikamma sadā sampajjate vataṃ,  
Idhe va sināhi brāhmaṇa sabbabhūtesu karohi khemataṃ.  
Sace musā na bhaṇasi sace pāṇaṃ na hiṃsasi,  
Sace adinnaṃ nādiyasi saddahāno amaccharī,  
Kiṃ kāhasi gayaṃ gantvā udapānopi te gayāti.

[BJT Page 092] [\x 92/]

14. Evaṃ vutte sundarikabhāradvājo brāhmaṇo bhagavantaṃ etadavoca: abhikkantaṃ bho gotama. Abhikkantaṃ bho gotama. Seyyathāpi bho gotama nikkujjitaṃ vā ukkujjeyya, paṭicchannaṃ vā vivareyya, mūlhasa vā maggaṃ ācikkheyya, andhakāre vā telapajjotaṃ dhāreyya: cakkhumanto rūpāni dakkhintīti, evamevaṃ bhotā gotamena anekapariyāyena dhammo pakāsito. Esāhaṃ bhavantaṃ gotam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ñca bhikkhusaṅghaṃca. Labheyyāhaṃ bho gotamassa santike pabbajjaṃ labheyyaṃ upasampadanti.

15. Alatta kho sundarikabhāradvājo brāhmaṇo bhagavato santike pabbajjaṃ. Alatta upasampadaṃ [PTS Page 040] [\q 40/] acirūpasampanno kho panāyasmā bhāradvājo eko vūpakaṭṭho appamatto ātāpī pahitatto viharanto na cirasseva yassatthāya kulaputtā sammadev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nti, tadanuttaraṃ brahmacariyapariyosānaṃ diṭṭhe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āsi.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itthattāyāti abbhaññāsi. Aññataro kho panāyasmā bhāradvājo arahataṃ ahoṣīti.

Vatthūpamasuttaṃ sattamaṃ.

# **Majjhima Nikāya I**

## **1. 7 Vatthuupamasuttaṃ**

### ***(7) The Simile of the Cloth***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i.

From there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bhikkhus: “O! Bhikkhus, just as an impure stained cloth when dyed into whatever colour, blue, yellow, red, or crimson, would take a bad hue and an impure colour because the cloth is impure and stained, in the same manner, bhikkhus, when the mind is defiled a bad state could be expected. Just as a pure unstained cloth when dyed into whatever colour, blue, yellow, red or crimson, it would take a pure colour and a bright hue, in the same manner, bhikkhus, when the mind is pure a good state could be expected.

“Bhikkhus, what are the minor defilements of the mind? Covetousness is a defilement of the mind. Aversion is a defilement of the mind. Anger is a defilement of the mind. Ill will is a defilement of the mind. Contempt is a defilement of the mind. Mercilessness is a defilement of the mind. Jealousy is a defilement of the mind. Selfishness is a defilement of the mind. Hypocrisy is a defilement of the mind. Craftiness is a defilement of the mind. Stubbornness is a defilement of the mind. Haughty talk is a defilement of the mind. Measuring is a defilement of the mind. Conceit is a defilement of the mind. Intoxication is a defilement of the mind. Negligence is a defilement of the mind.

“Bhikkhus, the bhikkhu, knowing covetousness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aversion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anger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ill will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contempt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mercilessness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jealousy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selfishness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hypocrisy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craftiness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stubbornness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haughty talk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measuring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conceit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intoxication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knowing negligence as a defilement of the mind dispels it.

“He is endowed with unwavering faith in enlightenment: That Blessed One is worthy, rightfully enlightened, endowed with knowledge and conduct, well gone, knower of worlds, the incomparable tamer of those to be tamed, teacher of gods and men, enlightened and blessed.

“He is endowed with unwavering faith in the Teaching: The Blessed One's Teaching is well proclaimed, here and now, not a matter of time, inviting for inspection, leading beyond, for the wise to be realized by themselves.

“He is endowed with unwavering faith in the Community: The disciples of the Blessed One have fallen to the right path, the straightforward path, the wise path, and to the path of mutual understanding. They are the four pairs of the eight Great Men, the disciples of the Blessed One; worthy of offerings, hospitality, gifts; and reverential salutation, the highest field of merit for the world.

“When his mind is cleaned, released and established as far as the limit allows he, knowing, ‘I have unwavering faith in enlightenment,’ gains meanings in the Teaching and experiences the Teaching, and joy arises; to the joyful there's delight. The delighted mind appeases the body. The appeased body feels pleasant. Of the pleasant, the mind concentrates. He, knowing, ‘I have unwavering faith in the Teaching,’ gains meanings in the Teaching and experiences the Teaching; and joy arises, to the joyful there's delight, the delighted mind appeases the body. The appeased body feels pleasant. Of the pleasant the mind concentrates. He knowing I have unwavering faith in the Community, gains meanings in the Teaching and experiences the Teaching, and joy arises, to the joyful there's delight, the delighted mind appeases the body. The appeased body feels pleasant. Of the pleasant the mind concentrates.

“As far as the limit goes my mind is cleaned, released, giving up is established, by that the Teaching has become meaningful and I experience the Teaching, and joy arise, to the joyful there's delight, the delighted mind appeases the body. The appeased body feels pleasant. Of the pleasant, the mind concentrates.

“O! Bhikkhus, if the bhikkhu with such virtues, thoughts, and wisdom were to partake of morsel food cooked out of fine rice with dark seeds picked, together with various soups and curries, there would not be any danger to him. Just as the impure stained cloth is cleaned with pure clean water, just as pure gold comes out of the furnace. Even so bhikkhus, if the bhikkhu with such virtues, thoughts and wisdom were to partake of morsel food cooked out of fine rice with dark seeds picked, together with various soups and curries, there would not be any danger to him.

“He abides pervading one direction with a mind of loving kindness, so too the second, third, fourth, above, below, across, always, for all purposes, he pervades the whole world with loving kindness, with a developed limitless mind without enmity and anger. He abides pervading one direction with a compassionate mind, so too the second, third, fourth, above, below, across, always, for all purposes, he pervades the whole world with compassion, with a developed, limitless mind without enmity and anger. He abides pervading one direction with intrinsic joy, so too the second, third, fourth, above, below, across, always, for all purposes, he pervades the whole world with intrinsic joy, with a developed limitless mind without enmity and anger. He abides pervading one direction with equanimity, so too the second, third, fourth, above, below, across, always, for all purposes, he pervades the whole world with a developed and limitless mind without enmity and anger.

“He knows, in this are unexalted and exalted states, there is a noble escape from this perceptive sphere. When he knows and sees that, his mind seeks release from sensual desires, from desires to be, and from desires through ignorance. Knowledge arises, am released, birth is destroyed, the holy life is lived to the end, what should be done is done, there is nothing more to wish. Bhikkhus, to this is called internal cleaning.”

At that time the brahmin Sundarikabhāradvāja was sitting near the Blessed One, and asked, “Does good Gotama go to Bāhuka river to bathe?”

“Brahmin, what is river Bāhuka, and what will it do?”

The brahmin said, “Good Gotama, many people consider river Bāhuka is the release, River Bāhuka is meritorious. Many people wash off their demeritorious actions in river Bāhuka.”

Then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brahmin Sundarikabhāradvāja in verses:

“River Bāhuka with many precious stones, rivers Gayā, Sundarikā,  
And even Sarassatii, Payāga, and Bāhumathie  
Fools may be forever submerged in these, but their dark actions will not be washed.  
How could Sundarikā, Payāga, and Bāhuka help angry beings gone wrong?  
Their evil actions will not be washed off.  
The pure are always pure, to them every day is a sabbath day;  
The pure with pure actions are always bound in virtues.  
Brahmin, bathe here itself, develop loving kindness to all beings.  
If you do not tell lies, do not hurt living things,  
Do not take that not given, with faith become not selfish,  
What could be done, gone to Gayā, may drink water there.”

When this was said the brahmin Sundarikabhāradvāja said thus to the Blessed One: “Now I know good Gotama, It seems as though something over turned is re-installed, something covered is made manifest. It seems as though the path is told to someone who has lost his way. It seems as though a lamp is lighted for the darkness for those who have eyes to see forms. In various ways the Teaching is explained by good Gotama. Now I take refuge in good Gotama, in the Teaching and the Community. May I gain the going forth and the higher ordination.

The brahmin Sundarikabhāradvāja obtained the going forth and the higher ordination. Soon after the higher ordination, venerable Bhāradvāja, withdrawn from the crowd, abode alone and secluded, diligent for dispelling. Before long, for whatever purpose sons of clansmen go forth from the household and lead the holy life, that highest end of the holy life he realized and knew for himself here and now: “Birth is destroyed, the holy life is lived, what should be done is done, there is nothing more to wish.” Venerable Bhāradvāja became one of the noble ones.